



그림은
나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친구

올해는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두 가지 형태로 발행합니다.

온라인 시대에 발맞추어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모바일로 받아 읽을 수 있는 전자책(PDF 및 E-book)을 매월 발행하고
또 이번 호와 같은 종이 소식지는 4월과 6, 9, 12월 네 번 발행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국세 수입 감소에 의한
불가피한 교육청 예산의 대폭 축소 편성이지만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인쇄본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줄여 보고 싶었습니다.

종이 소식지는 이전 기간 동안 발행한 전자책(PDF 및 E-book)의
각 코너 기사 중 나름대로 내용이 충실하고 유통기한이 긴 것을 고르고
새로운 특집 기사 하나를 추가해 구성합니다.

이번 호에는 박종훈 교육감 12년의 역작 중 하나인 ‘행복 교육’을 총정리했고
‘요즘, 아이’에서는 용남중 김도은 학생에 관한 기사를
‘요즘, 교육’에서는 김해 관동초 구은복 교사 관련 기사를 골랐습니다.

저희의 이 새로운 시도가 독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질타로
다음 해에는 더 나은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십시오.

목차

2026년 봄 | 112호

발행일

2026년 4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055-278-1788)

편집인

홍보담당관 박한규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최연희

주무관 김아경·김문명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주)큰그림

특집기획

04 행복학교
행복학교 12년,
한 교사의 날갯짓

06 행복학교
행복학교 12년,
공교육의 길을 다시 묻다

미래를 꿈꾸다

08 요즘, 아이
그림으로 대화하는 작가
용남중학교 김도은 학생

12 요즘, 교육
호기심을 기다려주는 수업
김해 관동초 구은복 교사

16 요즘, 학교
2026년 신설된 경남의 학교들
100년의 미래를 꿈꿉니다

20 즐겁지 아니한家
무대 뒤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다



가치를 만나다

24 지금, 경남교육
2026년 개소하는 돌봄센터

28 진로진학 나침판
새학년맞이,
고3을 위한 대입준비 길잡이

30 아이 안전
3월,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녕하신가요?

34 경남교육 체험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재미를 더하다

38 PLAY 경남
경남의 라이브 공연장

40 경남교육 기네스
경남 학교의 얼굴, 꽃과 나무로 읽다

42 힐링필링 교육명소
밀양에서 배우는 네 가지 장면

정보를 즐기다

46 우리말 톡톡
‘두쫘꾸’를 아시나요?

48 마음상담소
초등 입학 후 또래 관계
보호자의 역할은?

50 경남교육 캘린더





행복학교 12년, 한 교사의 날갯짓

전지영 학교혁신과 장학사

2014년 중등혁신학교연구회에서 첫걸음을 뒀다. 사파 중과 봉명중을 거쳐, 지금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로 일하고 있는 전지영 장학사. 그에게 행복학교를 한 단어로 묻자, 이렇게 답했다.

“행복학교요?”

저는 ‘나비의 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설 『꽃들에게 희망을』에는 끝없이 위로만 오르는 애벌레들이 등장한다. 더 높이, 더 빨리,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서로를 밀고 올라가는 기동. 하지만 그중 두 애벌레는 멈춘다. 오르는 대신, 스스로 고치가 되기를 선택한다. 멈추는 용기, 기다리는 시간, 견디는 변화. 그리고 마침내 나비가 된다.

“행복학교는 그 멈춤의 선택이었습니다.
점수와 순위를 향해 달리던 학교가,
잠시 멈춰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건 늘 불안하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통과하면서도 변화를 선택한 학교들.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비가 되기 위해, 서툴지만 분명하게 날갯짓을 시작한 학교들. 그가 만난 경남의 행복학교는 완성된 나비가 아니라, 지금도 날개를 키워가는 과정 그 자체였다.

행복학교의 가치를 느끼는 날

‘아, 이게 행복학교구나.’ 전지영 장학사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봉명중학교 첫 학년회의 시간이었다. 회의는 공지 사항 전달로 시작되지 않았다. 담임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관찰한 힘든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성적 이야기는 없었다. 행정 이야기도 아니었다. 오로지 ‘아이’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졌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전지영



장학사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한다. 아이를 책임지는 주체가 ‘한 교사’가 아니라 ‘학교 전체’라는 것.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려는 아이를 끝까지 붙잡는 일에 교육공동체가 함께 서 있는 학교. 그것이 행복학교였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남겼습니다

행복학교 12년의 성과를 단 한 가지로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선생님입니다.

행복학교라는 공통의 경험을 가진
현장 전문가들,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이자 자산입니다.”

행복학교는 학생 변화만을 말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교사들이 서로 배우는 거대한 연수장이었다. 교육과정을 다시 설계하고, 수업을 뒤집어 보고, 생활지도의 방식을 토론하고, 학교 문화를 새로 짜는 과정.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다. 그 시간을 통과한 교사들은 지금 경남 곳곳에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고 있다. 물론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초등과 중등의 변화 속도 차이, 현장을 이끄는 리더 교사들의 번아웃. 그리고 AI로 상징되는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 앞에서 고민이 많다. 그래서 전지영 장학사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꺼낸다. 행복학교 교실에서 시작된 변화가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을 만들고 싶다.

“행복학교는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경남 모든 학교의 가능성입니다.”

행복학교 12년, 공교육의 길을 다시 묻다

2015년, 경남에서 시작된 ‘행복학교’는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행복학교’는 단순한 혁신학교가 아니라, 공교육의 방향을 다시 묻는 질문이었다. 민주성·미래성·공공성·지역성이라는 철학 아래 학교 문화를 바꾸고, 수업을 바꾸고, 관계를 바꿔왔다. 2026년 현재 행복나눔학교 22교, 행복학교 150교, 행복맞이학교 65교. 12년의 시간은 숫자로도 증명되지만, 더 분명한 변화는 교실 안에서 일어났다.

행복학교는 학교 민주주의를 일상으로 만들었다. 교직원 다모임, 학생자치 활성화, 학부모 참여 확대는 선언이 아닌 문화가 되었다. 수업은 배움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프로젝트 학습과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자리 잡으며, ‘혼자 하는 수업’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수업’으로 전환됐다. 사계절 학교, 마을 교육 과정, 학년별 프로젝트는 지역과 연결된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성과는 분명하다. 2026년 행복학교 공모 응모율은 380%. 2025년 만족도는 87.5점으로 일반 학교 평균을 웃돈다.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인식은 높았고, 수업 나눔과 민주적 문화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민주 시민 역량, 공동체 역량, 다문화 수용성 등 비인지적 역량이 향상됐고, 정서적 안정감도 높게 나타났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입시 중심 체제 속 고등학교의 만족도,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형식화 우려, 교사 소진과 혁신 피로감, AI와 돌봄 등 확대되는 학교 역할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그래서 행복학교는 ‘3.0’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치와 생태, 미래가치를 강화하고,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하는 단계다.

행복학교 12년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교실을 바꾸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는 것. 경남의 행복학교는 오늘도 그 증명을 이어가고 있다.

QR로 만나는 행복학교



행복학교 백서



행복학교 3.0



행복학교 밴드

QR 접속 후 신청(승인 후 이용)



2026. 행복학교 현황



행복나눔학교

22개교

행복학교의 철학과 문화를 확산하는 경남형 미래학교

경남형 미래학교
운영기간 4년



행복학교

150개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학교

공교육 모델학교
운영기간 4년



행복맞이학교

65개교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실천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학교

행복학교 준비학교
운영기간 1년



전문적학습공동체

31개팀

행복학교 관련 학습공동체 및 지역의 행복학교 철학 확산

3개교 5명 이상
운영기간 1년

경남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은 행복학교

미래교육 활성화 10.0%

행복(나눔)학교 운영 8.8%

교육복지 확대 8.0%

학생 인권보호 7.8%

체육·예술교육 7.2%

행복학교,
경남교육 12년
성과 중 **전체 2위**

학생이 가장 체감하는 학교의 변화, 행복학교

학생들에게 행복학교는
자율과 존중이 있는
공간입니다.

11.9%

학생 인권보호

학생 선호 정책 Top 2

11.6%

행복(나눔)학교
운영

민주적 학교 문화와 배움 중심 수업의 정착



4.34

배움중심수업확산
(5점 만점)



4.20

학생자치
활동의 기여

※ 수직적 학교 문화가 수평적이고 학생 주도적인 문화로 전환됨을 입증

현장의 목소리: 외형적 확대를 넘어 내실화로

행정 업무 경감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효성 논란
행복학교라는 라벨보다 실질적인 수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업무 분리
교무행정팀의 실질적 가동으로 수업에 전념해야 합니다



사천 용남중학교 교실 한쪽에는 색이 가득한 그림들이 놓여 있다. 동물이 우주를 여행하고, 당근을 먹던 말 이 야구를 하기도 한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지만, 그 세계에서는 모두 자연스럽다. 이 그림들 을 그린 주인공, 바로 용남중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도은 학생이다. 김도은 학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 지고 있다. 말로 자신의 마음을 길게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많은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그러하 듯,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놀라운 집중력과 지속성을 보이기도 한다. 특정 주제에 깊이 몰입하며 세 밀한 관찰력과 독창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것은 자폐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도은 학생에게 그 대상은 바로 '그림'이다. 도은 학생은 그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종이 위에 동 물을 그리고, 상상의 친구들을 만들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펼쳐 보인다. 그에게 그림은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언어다. 도은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먼저 그림 이야기를 꺼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머릿속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그의 소개는 짧았지만 분명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 는 학생의 목소리였다.



상상 속 친구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일

그림으로 대화하는 작가,
용남중학교 김도은 학생

#1 상상 속 친구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최근 김도은 학생은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장을 찾 은 관람객들은 캔버스 위를 자유롭게 오가는 동물들, 상상의 공간을 여행하는 존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전시를 준비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그는 전시장 풍경부터 떠올 렸다.

“전시장에 제 그림들이 걸리니까 설레고 두근거렸어요. 제 상 상 속 그림 친구들이 세상 밖으로 놀러 온 것 같아 행복했어요.”

도은이에게 그림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 내온 존재들이다. 종이 위에서 태어나고, 색을 입고, 마침내 벽에 걸려 다른 사람을 만나는 친구들. 그 시작은 아주 자연 스러웠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불안함이 사라지고, 마음속에서 예쁜 마음들이 자라났어요.”

그림은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일이었다.

#2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세계

김도는 학생의 그림에는 동물들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동물들과는 조금 다르다. 야구를 하기도 하고, 우주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현실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대신, 상상의 법칙을 따른다.

“동물을 좋아하고, 표정과 행동을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역시 그런 상상에서 시작됐다. 2026년을 맞아 그린 ‘붉은 말’ 그림이다. 마치 이습우화 속 주인공 같은 말의 모습은 현실에서는 이어질 수 없는 장면들이지만, 그림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런 도은 학생의 마음이 전달된 걸까. 전시장에서도 이 그림 앞에 오래 머무는 관람객이 유난히 많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와 보는 사람도 있었고,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도은 학생의 그림은 보는 사람을 잠시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 무엇이 특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익숙한 동물의 모습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붙잡고, 그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스스로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 01 학교 개인전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김도는 학생과 지켜보는 친구들
- 02 문화예술 특별교실 작품전시에 참가한 김도는 학생
- 03 김도는 학생의 두번째 개인전 전경
- 04 자신이 그린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도는 학생
- 05 상상 속 동물과 이야기를 담아 그린 김도는 학생의 작품

#3 그림으로 이어지는 관계

학교에서 그의 그림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친구들은 그림을 보고 재미있다고 말하고, 선생님들은 그의 작품을 응원한다. 그림을 통해 도은 학생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연결된다.

“그림을 보고 재미있다고 말해주시거나 잘 그린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특히 학교에서 열린 개인전은 그에게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교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관람객이 되어 그의 그림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그 든든한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세계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경험. 그것은 작가로서의 첫걸음이기도 했다.

#4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그려가는 일

전시를 경험하며 그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다. 더 큰 캔버스에 도전하고, 새로운 색을 사용하며 표현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의 곁에서 이를 지켜본 부모님 역시, 그림이 아이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지금은 예전보다 큰 캔버스에 새로운 색과 표현들을 배우며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공감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즐거움과 자신감이 성장했다. 그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다.

#5 그림은, 나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친구

도은 학생의 꿈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림 작가가 되는 것이다. 말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고, 설명보다 먼저 웃음과 궁금증을 불러오는 것. 그림을 통해 도은 학생이 그리고 싶은 미래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도은 학생은 앞으로도 그리고 싶은 그림이 많다. 아직 종이에 옮기지 못한 장면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이다. 4월에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특별전>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를 기다리는 도은 학생의 얼굴에 벌써부터 설렘이 묻어났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그림이 어떤 존재인지 묻자, 어떤 때보다 씩씩하게 답했다.

“그림은 나를 웃게 해주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친구예요.”

교실에 남아 있던 색들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색들 위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김도는 학생은 오늘도 그림을 그린다. 상상 속 친구들이, 또 한 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특별전

- 기간 2026. 4. 20.(월) ~ 4. 30.(목)
-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갤러리홀
- 참여 작가 사천 용남중학교 김도는, 창원천광학교 김다민·이정환 학생

정답을 찾는 수업이 아닌 호기심을 기다려주는 수업

김해 관동초등학교 구은복 교사

과학은 종종 '어려운 과목'으로 불린다.

하지만 어떤 교사는 과학을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 주는 가장 따뜻한 도구"라고 말한다.

2025년 과학 교사상을 받은

김해 관동초등학교 구은복 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구은복 교사의 수업에는 실험도 있고,

마술도 있고, 그림책도 있다. 무엇보다 즐거움이 있다.

아이들이 무언가에 몰입해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구은복 교사.

과학은 '보물찾기'처럼 시작된다.

구은복 교사는 18년 전 함안 이령분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작은 학교였기에 아이 한 명 한 명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해 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교실 안에만 머무르는 수업 대신 학교 안팎을 오가는 수업을 시작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탐구 활동을 이어 갔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과학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일깨우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 준다는 사실을.

"작은 발견 하나에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을 보며, 과학이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 주는 따뜻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구은복 교사는 과학 수업을 '보물찾기'에 비유한다. 찾아내는 기쁨이 크기 때문이다.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왜 그런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 입에서 새로운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은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그대로 따라 말하지 않고, 자기만의 언어로 생각을 꺼내는 순간이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과학 수업은 정답을 빨리 찾는 수업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기다려주는 수업이에요."

Goo



Eunbok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는 시간

구은복 교사는 주말이나 방학 때 ‘찾아가는 과학교육’으로 아이들을 직접 만난다. 이유는 단순하다. 배움에 대한 호기심은 넘치지만 돌봄 환경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학과 주말마다 틈틈이 영재 키움 학생들과 함께 과학 마술과 그림책 읽기를 시작했다. 마술 속에 숨은 과학 원리를 함께 찾아가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 따뜻한 성장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 각자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고 싶었다.

“‘찾아가는 과학교육’은 특별한 무언가를 더해 주기보다는, 환경 때문에 미뤄졌던 경험을 아이들 곁으로 직접 가져다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구은복 교사는 아이들이 눈동자를 반짝이며 탐구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결과보다 과정에 끝까지 매달리는 아이들의 탐구력과 끈기를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느 날, 과학 마술로 원심력을 이용해 자석의 양 끝에 공을 올리는 활동을 했다. 생각처럼 잘되지 않자, 대부분 아이들은 도전을 멈췄다. 하지만 한 아이만은 달랐다. 방법을 바꿔 가며 끝까지 실험을 이어갔다. 집에 가자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 아이는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석의 양 끝으로 공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번진 표정을 구은복 교사는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것은 성취의 환호가 아니라 발견의 기쁨이었다.

“더 인상 깊었던 건, 다음 봉사활동에서 그 아이가 새로 온 친구들에게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꼬마 선생님처럼 차분하게 시범을 보이며 알려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과학은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순간,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1



02

01 구은복 교사가 교실에서 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02 실험 활동을 통해 원리를 안내하는 수업 모습

03

03 구은복 교사가 집필한 도서 표지
04 2025년 과학 교사상 수상 상장

정답보다 호기심을 믿는 수업

구은복 교사의 수업에는 늘 즐거움이 있다. 과학 마술, 체험, 이야기. 출발점은 단순하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즐거움 속에서 아이들은 관찰하고, 연결하고, 생각을 꺼낸다. 과학은 이렇게 말해 준다. 실패해도 괜찮다. 한 번에 되지 않으면 다시 해 보면 된다. 그래서 과학은 재미있는 과목을 넘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된다. 정답보다 호기심을 믿는 수업. 그 교실에서 아이들은 오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제가 꿈꾸는 교실은 조용한 집중과 질문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집중 속에서 질문이 자라고, 질문 속에서 생각이 깊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은복 교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는 2025년 ‘올해 과학교사상’을 받았다. 상을 받은 소감을 묻자 고맙지만 조심스럽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혼자 받은 상이 아니라, 교실에서 함께 웃고 실험하며 실패를 견뎌낸 아이들과의 시간에 대한 격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상은 ‘얼마나 지금까지 잘해왔느냐’ 보다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교사가 되고 싶은 구은복 교사. 어쩌면 구은복 교사의 교실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건 과학 공식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태도일지 모른다. 정답을 빨리 찾는 법이 아니라 끝까지 질문을 놓지 않는 마음. 상을 받은 교사가 아니라, 여전히 배우고 있는 교사. 구은복 교사의 수업은 오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2026년 신설된 경남의 학교들

100년의 미래를 꿈꿉니다

지난 3월, 경상남도교육청은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에 공립 신설 학교 6곳을 새롭게 개교했다. 대부분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지 인근이다. 공동주택 개발과 혁신도시 확장으로 인구가 이동한 자리. 아이들이 늘어난 만큼, 교실도 필요했다. 이번 신설은 단순히 학교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 과밀학급을 줄이고, 통학 시간을 단축하며 학군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다. 아이들의 하루를 바꾸는 결정이다. 통학 시간이 줄어들면 피로가 줄고, 집중력이 달라진다. 학교는 그렇게 아이들의 삶의 리듬을 바꾼다.

과밀을 줄이고,
여유를 설계하다

창원에는 북면중학교(15학급·430명), 진해중학교(32학급·852명), 김해에는 내덕초등학교(43학급·1172명), 거제에는 거제상문중학교(34학급·966명), 그리고 양산에는 사송고등학교(34학급·924명)가 문을 연다. 그리고 진주시 가좌동에 금빛초등학교·금곡중학교가 신설되었다. 서부 경남 최초의 초·중 통합학교로, 초등 25학급(506명), 중등 13학급(313명) 규모다. 도내 최초로 초등부터 중학교까지 9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체육관·시청각실 등 시설을 공동 활용한다. 교육의 연속성과 예산의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모델이다. 이는 경남교육이 단순히 학교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 방식'까지 새롭게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학년도 신설 학교 현황



현황 안내

지역	학교명	학급 수(특, 유)	학생 수
창원	북면중학교	15(0, 0)	430명
창원	진해중학교	32(2, 0)	852명
김해	내덕초등학교	43(1, 0)	1172명
진주	금빛초등학교(통합)	25(1, 0)	506명
	금곡중학교(통합)	13(1, 0)	313명
양산	사송고등학교	34(1, 0)	924명
거제	거제상문중학교	34(1, 0)	966명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 사송고등학교

양산 사송고는 사송신도시 학군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먼저 들어섰고, 고등학교는 2022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설립이 확정됐다. 양산은 전국에서도 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학생들은 먼 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했고, 학군 정상화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도 컸다. 사송고는 그렇게 신도시 학군 완성, 과밀 해소, 주민 요구 반영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신설 학교는 기대만큼 부담도 크다. 입지 여건으로 인해 초기 정원 미달 가능성, 새로 모인 교직원들의 팀워크 형성, ‘신도시 첫 고등학교’라는 상징성까지. 하지만 사송고는 이 시기를 ‘신뢰를 쌓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사송고등학교 전경



사송고등학교 중앙 연결 통로가 이어진 전경

첫 등교하는 날

3월 3일 첫 등교가 시작된 날. 아직 교복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단정한 사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학교로 들어왔다. 친구들과 웃으며 들어오는 학생도 있었고, 조용히 긴장한 얼굴로 교문을 지나가는 학생도 있었다. 같은 ‘첫 등교’였지만 표정과 걸음은 모두 달랐다. 입구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던 교사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먼저 느껴야 하는 것은 환영보다 안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며 ‘괜찮아,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함께할 거야’라는 마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의 첫 발걸음이 조심스럽든 씩씩하든, 모두가 학교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사송고등학교가 내세우는 교육 방향은 분명하다. 학생 중심의 교육이다.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질문이 오가고 생각이 확장되는 수업으로, 암기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토론, 체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하나의 방향은 AI·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이다. 단순히 기기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와 융합 교과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술을 소비하는 학생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학생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쾌적하게 설계된 교실과 다양한 학습 공간은 이러한 교육철학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사송고는 미래형 교육을 실현하는 신도시형 고등학교다.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학교

사송고 설립은 주민 서명운동과 지속적인 요구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사송고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교육 거점이다. 학교를 넘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학교를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학부모 참여가 중요하다.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통한 열린 구조, 지역 기관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신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모델로 만들고 싶다.

“학부모들이 믿고 보내는 학교,
지역민이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2026년 경남의 신설학교는 지역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전략이다. 도시가 커질 때, 학교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먼저 준비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현장에 아이들이 있다.

교문 앞 복도



교문 왼쪽 복도



교문 앞 복도



체육관



지난해 11월 방송된 <kbs 전국노래자랑> 경남 고성군 편. 작은 몸에서 뿜어
져 나오는 에너지로 관객을 단번에 사로잡은 초등학교생이 있었다. 고성군 ‘꼬마
제니’의 등장이었다. 격렬한 춤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를 안정감 있게 소화했다. 장차 제니 같은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소녀의
이름은 정가온. 고성에서 소문난 여섯 남매 중 다섯째였다.

특히 이날, 가온 양이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깜짝 리마인드 웨딩 이벤트는 현장
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미소 짓게 했다. 다시 면사포를 쓴 엄마와 수줍은 듯 웃
는 아빠. 그리고 무대에서 함께 남긴 가족사진은 tv프로그램의 한 컷을 넘어 이
가족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처럼 남았다. 그래서 만났다. 화면 밖에서 이 가
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무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듣기 위해.

무대 뒤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다



가온 양이 준비한 리마인드 웨딩 이벤트로 가족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01

고성군의 소문난 여섯 남매

아빠 정순신 씨와 엄마 조미정 씨 그리고 첫째 정수연(22), 둘째 정주
환(21), 셋째 정예림(19), 넷째 정건희(17), 다섯째 정가온(12), 여섯째
정다운(8). 나이 차도 크고 아이들마다 성향도, 관심사도 다르다. 누군
가는 대학에서 자신의 길을 모색하고 있고, 누군가는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막내는 아직 한창 자라는 중이다. 서로 다른 속도
로 달리고 있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준은 같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자신을 믿고 끝까지 노력하는 마음이지요.”

정순신 씨와 조미정 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원칙이다. 결과
를 먼저 묻기보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어
가는지를 본다. 경쟁에서 앞서기보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냈
는지를 더 크게 본다. 그래서 조미정 씨는 가온 양을 보며 늘 대견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02

12살 가온 양의 꿈을 향한 시간

방송 이후 가온 양에게는 ‘고성 꼬마 제니’라는 별명이 붙었다. 고성에
서는 제법 알아보는 얼굴이 됐다. 그러나 엄마 조미정 씨는 알고 있다.
무대는 결과였고, 가온 양의 시간은 훨씬 이전부터 쌓여왔다는 것을.

고성군 ‘꼬마 제니’
정가온 학생
가족 이야기



가온 양은 2년째 댄스학원을 다니고 있다. 일주일에 세 번, 집과 학원을 오가며 연습을 이어간다. 대회가 있는 시기에는 주말에도 2시간 이상 연습을 더한다. 특별한 재능을 강조하기보다 반복과 루틴을 지키는 힘이 실력을 만든다고 믿는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참가한 전국 K-POP 댄스 경연대회에서는 300여 명이 넘는 참가자 중 본선 15개 팀에 선발됐고, 그중 가장 어린 나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어린 나이였지만 떨지 않고 무대를 완성해낸 경험은 가온 양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후 전국 무용 경연대회 실용 무용 부문에서도 특상과 최고 점수를 받으며 실력을 증명해왔다.

그러나 엄마가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장면은 상장 수여식이 아니다. 연습을 마치고 돌아온 가온 양이 땀에 젖은 채 “오늘 진짜 재밌었어”라고 말하던 순간. 힘든 시간을 견디고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 태도, 그 표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길은 괜찮다고 엄마는 말한다.

#03

춤과 아쟁, 다른 무대 같은 태도

가온 양은 학교 국악오케스트라에서 아쟁을 연주한다.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지는 아이돌 무대와는 다른 결의 세계다. 소리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집중력과 끈기가 요구된다. 하지만 이 두 활동을 따로 보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의 완성도는 결국 태도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쟁을 켤 때의 집중력, 춤을 출 때의 표현력, 관객을 바라보는 눈빛. 그 모든 순간에서 아이가 ‘즐거고 있는지’를 먼저 본다.

“잘했는지 보다,
진심이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04

여섯 남매를 키우는 집의 하루

지금은 첫째와 둘째가 독립했지만 여섯 남매가 함께 자라던 집의 하루는 늘 분주했다. 학업 일정, 연습 시간, 대회 준비와 이동까지 겹치면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다. 특히 가온 양이 대회에 참가하는 시기에는 장거리 이동과 준비



- 01 연습을 기록하는 엄마의 시선
- 02 반복되는 연습으로 채우는 시간
- 03 아쟁을 통해 국악 무대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04 KBS 전국노래자랑 출연 장면

가 이어지며 부모의 역할도 더욱 바빠졌다. 그럼에도 이 가족은 ‘함께 해결한다’는 방식을 택해왔다. 누군가는 동생을 챙기고, 누군가는 집안일을 돕는다.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조율하면서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법을 배웠다.

힘든 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 저녁이면 식탁에 모여 서로의 하루를 나눈다.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고 웃고,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 대화의 시간이 이 가족에게는 가장 큰 회복의 힘이다.

형제자매가 많다는 건 경쟁자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응원단이 많다는 뜻이라고 부모는 말한다. 가온 양 역시 언니와 오빠, 동생의 응원 속에서 자라고 있다. 집에서 가온 양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한다. 가족 모임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나서서 춤을 추고 분위기를 띄운다. 재능은 무대 위에서만 쓰이지 않는다. 가족을 웃게 하는 순간에도 같은 에너지가 흐른다.



#05

가온 양이 꿈꾸는 미래 그리고 가족

가온 양은 장차 ‘제니’ 같은 아이들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전 세계에 K-POP을 알리고,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전하고 싶단다.

“무대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또렷한 목표다. 자신이 받은 응원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다. 엄마 조미정 씨는 아이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주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지금도 즐겁니?” 그리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 길을 함께 걸어준다.

전국노래자랑 무대는 잠깐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서로를 지지해 온 가족의 단단한 힘이 녹아있었다. 아이의 재능이 아니라, 재능을 바라보는 태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함께 건디는 방식. 무대는 혼자 오르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응원 위에 세워진다.

정가온 양의 무대 뒤에는 늘 가족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만났다. 한 아이의 꿈이 어떻게 지지받으며 자라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는 경험, 그 곁에서 먼저 박수 쳐주는 가족. 그 장면이 야말로, 정말 즐겁지 아니한가.

배움을 더 넓게!

2026



우리 아이들의 방과 후, 경남교육이 책임집니다

돌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경남교육청의 발걸음이 2026년 봄, 진주와 창녕에 닿는다. 경남교육청은 늘어나는 초등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남교육청 돌봄 센터 '늘봄'을 두 지역에 새로 조성한다.

2025년 문을 연 늘봄남해 아이빛터와 늘봄밀양 다봄에 이어, 2026년 3월 두 돌봄센터가 개원했다. 지역 특성에 맞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진주와 창녕 늘봄 현장을 들여다본다.

늘봄이란?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통합 돌봄'입니다. 경남교육청 돌봄센터 늘봄은 여러 학교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거점형 공적 돌봄센터입니다.

경남의 온동네 경남교육청 돌봄센터 운영 현황을 알아볼까요?

2021년 문을 연 늘봄명서를 시작으로 늘봄상남(2022), 늘봄김해(2023), 늘봄밀양 다봄(2025), 늘봄남해 아이빛터(2025)가 차례로 개소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늘봄진주와 늘봄창녕 따숨이 새롭게 문을 열어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경남교육 주요 신설 사업 중 하나인

초등 3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초3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경남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 **지원대상** 경남 지역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중 희망 학생(기간: 2026.3. ~ 2027.2. 1년)
- **지원방법** 학기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교부(연간 48만 원)

Q
무엇을
지원하나요?

-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하는 학생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8만 원(분기별 12만 원) 지원
- 분기별 방과 후 프로그램 출석률이 50~80%이상일 경우 다음 분기 이용권을 지원하며 출석률 기준은 학교에서 정함
-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료로 사용
- 경남교육청 돌봄센터의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료로 사용 가능
-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중복지원 가능
- 초등학교 3학년 전 학생이 무상으로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교는 돌봄·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





대기수요 해소형, 늘봄 진주



진주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서비스와 빈틈없는 안전 시스템을 갖춘 경남교육청 돌봄센터 '늘봄 진주'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특화1** 고품격 프로그램, **특화2** 애나 안전 시스템, **특화3** 건강 로컬 간식이라는 3가지 특화전략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운영 체계를 선보입니다.

공간 구성 계획

- 설립추진 TF 조직
- 사용자 참여형 설계
- 프로그램 맞춤형 공간 구성 **특화1**



학생 수용 계획

- 수용 인원: 5반(125명 예상)
- 대상학교에서 4.5km, 10분 이내 이동 가능

집중 돌봄교실

- **집중돌봄** 월~금 방과 후~18:00
- **방학돌봄** 방학 중 8:00~18:00
- **저녁돌봄** 신청학생 18:00~20:00
- **토요돌봄** 토요일 8:00~13:00
- **긴급돌봄** 학교·양육자 긴급 상황
- **건강로컬간식** **특화3** 진주 로컬푸드를 활용한 간식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고품격 프로그램 운영 **특화1**



프로그램 맞춤형 공간 활용
골프실·가상스포츠실·음악실 등



주변 교육 인프라 활용
수영장, 클라이밍집, 대학,
드론 교육장, 거점학교 강당 등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운영

안전 관리 계획

● 애나 안전 시스템 **특화2**



자원봉사자·안전지킴이



아이맞이실·안전 보호 시설



CCTV·안심버스



안심알리미·원스톱관리

“ 늘봄 진주는 3대 특화전략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 소멸 대응형, 경남교육청 돌봄센터 늘봄 창녕 따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창녕만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돌봄을 실현합니다. 다양한 지역 자원과의 연계 및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돌봄 모델을 마련합니다.

따숨 방과후학교 운영

- 주말 방과 후·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인성교육, 체험, 신수요 중심 프로그램 운영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연계 인성 및 진로 프로그램 발굴·공유
- 방과후학교 연계 지역 특색 기관 선정 운영
- 지역 거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역 자원 활용 활력 센터 운영

- 거점 활동 공간 발굴·구축을 통한 안정적 운영
-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운영
- 지역 인력풀 활용

새학년맞이, 고3을 위한 대입 준비 길잡이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2월, 학교는 '새학년맞이 교육과정 함께 세움 주간'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합니다. 올해 고3이 되는 학생과 보호자는 새로운 담임선생님은 누구인지, 대학 입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고민 많은 고3 학생과 보호자들을 위해 우리 교육청 대입정보센터(창원, 진주, 김해)에서는 전 고등학교 교실에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제작하여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 100%, 학생부+면접, 학생부+서류로 분류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대학별로 교과 반영 방법이 다르므로 유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영 방법은 전 과목, 국수영사과, 국수영사·과, 상위 12과목, 상위 10과목 등으로 나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을 준비할 때는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다면 수능 공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형 방법(서류 평가 방법, 면접 유무)과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며 서류평가와 면접을 실시하거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는 대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보는 것(예시)과 전형 평가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보는 것(예시)

- **출결상황** 학생의 기본적 성실성
- **자율·자치 활동** 단체활동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창의성, 활동 결과, 문제해결 능력 등
- **동아리 활동** 관심분야, 탐구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인성, 협업 능력 등

전형 평가 요소

- **학업역량** 대학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적능력, 폭넓은 지식의 깊이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 **진로역량** 자신의 진로와 전공(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
- **공동체역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학업 외 소양(바른 인성, 공동체 의식, 나눔, 책임감 등)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대학의 환경과 인재상을 확인하고, 면접에 대비하며 학교·학급·학업 활동을 성실히 마무리해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 2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심화해 깊이 있는 탐구활동을 수행하고, 학년별·과목 간 연결과 융합을 고려해 창체활동을 활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내신 관리는 주요 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면접

면접은 서류 기반과 제시문 기반으로 구분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서류 내용과 인성을 확인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이 이 면접을 진행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제시문을 이용한 질의응답으로 고려대(계열적합, 고른기회), 서울대(일반), 성균관대(과학인재), 연세대(활동우수, 기회균형, 국제형, 국제인재) 등이 해당합니다.

면접 대비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은 학생부 내용 분석부터
- 제시문 기반 면접은 이전 면접문항 먼저 확인하여 활용
- 기출문제는 각 대학 입학처의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와 면접 가이드북(또는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통해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 작성 후 담임선생님 확인
- 실전에서는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릴 수 있으니 부모님,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 과하게는 교장선생님께도 요청해 용기있는 연습이 필요



2027학년도 월별 수시 준비 체크리스트

2027학년도 월별 수시 준비 체크리스트입니다. 매달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학업과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 | | |
|-----|---|
|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학년 목표 세우기(내신, 수능, 건강관리) • EBSi 교과강의 및 교재 예습 • 전년도 수능, 모의평가(6, 9월) 분석 • 자기주도적인 공부 만들기 |
|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 •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확인 • 학생부 기재 내용 확인, 활동 계획 세우기 • 중간고사 준비 |
|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수행평가도 확인) • 3월 전국연합 성적 분석(오답 확인, 자신의 위치 파악) • 아침엔 계획하고 잠들기 전 점검하여 어제보다 나은 나로 자존감 UP!! |
|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7일 전국연합학력평가 • 중간고사 성적 확인 분석, 비교과 활동과 성적 교차 점검 • 비교과 영역(교과연계) 창체 활동 • 수시모집요강, 학생부기록 등 확인 |
|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 등급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등 확인 • 오답노트, 문항 분석, 해설 강의 꼭 듣기 •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수행평가 관리) |
|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8일 전국연합학력평가 • 최종 내신 성적 확인 및 학생부 마무리 • 7월 모의고사 분석 및 9모 대비 총력 • 7월 18일 제16회 아이좋아 대학진학박람회 |
|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11일 수능 D-100 • 수능형 루틴(오전 국수, 오후 영탐) • 수시 모집 상담(대학별 모집 요강 정독 및 어디가 활용, 최저 및 내신성적 고려하여 갈 수 있는 대학 확인하기, 지원 자격 확인 및 학생부 보완 사항 확인) |
| 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 9월 7~11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 • 면접 일정 꼼꼼한 확인 필요 |
| 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20일 전국연합학력평가 • 적응률 높은 경남교육청 출제 마지막 모의고사 |
|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가채점 후 면접 대비 잘하기(기출 문제, 모의 문제, 예상 문제) • 면접 이후 면접 후기 적어보기 |
|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11일 수능성적표 확인 • 12월 18일까지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발표 • 12월 21~23일 수시모집 합격자등록 • 12월 24~29일 미등록 충원 합격 등록 마감(~18시) • 12월 30일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22시) |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녕하신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른들의 관심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학교 앞 등하굣길.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이 길이
언제나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남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작은 실천

'이것'만 기억하면 안전해요!

1

안전보행 3원칙

서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춰요. 한 발 뒤로
물러서 차량을 확인해요.

보다



초록불일 때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을 살펴요.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확인해요.

걷다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요.
주변을 살피며 건너요.

2

보행 중 금지사항



무단횡단 금지

교통신호를 지켜요.
횡단보도로 건너요.



스마트폰 금지

걸을때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아요. 주변을 보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어폰을 빼고 귀를 열어요

보행중,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경적과 자전거 벨 소리를
꼭 들어요.

운전자의 작은 실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3 안전운행 3원칙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가장 위험한 '움직이는 벽'과 같습니다.



무조건 '일단 멈춤'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가 없어도 반드시 멈춰주세요.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에서는 항상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

+ 어린이보호구역 +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입니다.

함께 만드는 약속

우리 다 함께 실천해요!

4 등하굣길 안전 서약서

등하굣길 안전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만드는 약속입니다.
아이와 함께 실천해 주세요.



등하굣길 안전 서약서

[하나, 아이의 약속]

길을 건널 땐 멈춰서 보고, 손을 들고 건너겠습니다.
걸을 땐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앞을 살피겠습니다.

[둘, 보호자의 약속]

학교 앞에서는 천천히 운전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2026년 한 해 동안 지키겠습니다.

어린이 김범준 (인)
보호자 최서행 (인)

안전한 경남교육,
우리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답이 아닌 더 나은 질문을 만나는 곳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의령에 자리한 미래교육원은 겉으로 보면
첨단 디지털 체험 공간처럼 보인다. 그러나 알고 나면
이곳이 단순히 기술을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미래교육원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곳이 말하는 '미래 교육'은 무엇인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최영수 교육연구사를 만났다.



02



01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의 방향을 묻다.

미래교육원은 경남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학교 현장에는 새로운 질문이 쏟아진다. 미래교육원은 그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 미래교육원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미래교육 허브' 기관입니다. 디지털 기반 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경남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최영수 연구사는 미래교육원을 단순한 체험 시설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공교육의 확장 공간으로 설명한다.



03

- 01 하늘에서 바라본 미래교육원의 모습
- 02 창의융합놀이터의 디지털클라이밍
- 03 미래교육원 교육연구사 최영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놀이 체험과 코딩 학습 프로그램은 물론, 의령 지역의 문화·놀이·생태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기술과 인문을 함께 아우른다. 또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의 개발·운영과 디지털 학습기기 '아이북'의 보급·관리 등 디지털 학습 환경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상상과 질문이 통하는 미래교육원 DNA

'미래교육원은 어떤 곳인가요?'라는 질문에 최영수 연구사는 이렇게 답했다.

☞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하자면 '상상'과 '질문'입니다.

미래교육원은 정답을 빠르게 찾는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질문의 방향과 깊이를 바꾸는 경험을 제공한다.



공간과 모델링

- 04 4족 보행 로봇 관찰 및 제어 체험
- 05 AI 로봇 수술 체험 프로그램 진행 모습
- 06 공간과 모델링 체험 중 생성형 AI로 아바타 키링 만들기 진행 장면
- 07 미래 모빌리티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컨트롤러를 활용한 드론 조종 설명을 듣고 있다.

학생들의 환호가 남긴 의미

익숙한 답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돕는 공간이다. 상상하고 질문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들의 사고는 확장되고, 스스로 탐구하는 힘이 자란다. 이것이 미래교육원이 말하는 핵심 가치다.

☞ 미래교육은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은 삶을 상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가능할까', '그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스스로 묻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래의 삶을 상상하고 질문한다. 이 상상과 질문의 과정 자체가 미래교육원이 추구하는 교육 철학이다. 기술은 수단일 뿐, 그 중심에는 언제나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

미래교육원은 2023년 개원 이후 꾸준히 학생과 학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12월 기준, 약 41만 명의 학생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크게 학교 체험 프로그램과 특별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학교 체험 프로그램은 미래교육원 수업과 의령 지역 체험을 연계한 1일형 체험 학습으로 운영되며, 주말과 방학 기간에는 특별 체험 및 숙박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체험 이후 반응은 어떨까. 최영수 연구사는 먼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2025년 학교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90.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수치도 의미 있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더 인상 깊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로 특수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의 체험 수업을 꼽았다. 수개월 전부터 교사들과 준비를 거듭했고, 수업 당일에는 모든 교사가 함께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지원했다.

더 나은 질문을 만나게 하는 곳

☞ 학생들이 코딩 과제를 완성하고 선생님과 함께 환호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체험을 마친 뒤 학교로 돌아가 모두 웃으며 귀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공간의 의미를 다시 느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공간과 모델링

여섯 가지 테마 가운데 가장 빠르게 마감되는 프로그램은 '공간과 모델링'이다. VR과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설계하는 수업이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

☞ 현실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공간을 자유롭게 만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아이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몰입형 체험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결합된 이 프로그램은 미래교육원이 지향하는 교육 방향을 잘 보여 준

다. 미래교육원의 다음 과제는 무엇일까. 최영수 연구사는 '콘텐츠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강조했다.

☞ 기술과 사회는 계속 변합니다. 그 흐름을 읽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민간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공교육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는 연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톡톡의 고도화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교육원은 여전히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 미래교육원은 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더 나은 질문을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무대는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경남의 라이브 공연장

공연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문화가 아니다.
큰 공연장이 아니어도, 도심 속 작은 공간에서
라이브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가까운 공연장은 소리와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한다.
배우의 숨소리와 연주자의
손끝 움직임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공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경남의 공연 공간 두 곳을 소개한다.



창원 가로수길의 소극장 펍시어터 가로수극장

창원 가로수길에 위치한 <펍시어터 가로수극장>은 연극과 공연이 이어지는 소극장이다. 기존 '창원축제 소극장'을 바탕으로 새롭게 문을 연 이곳은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가까워 배우의 움직임과 호흡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현재 창작극<5분 로맨스>가 절찬리 공연 중이다. 공간의 특성을 살린 무대 구성과 배우의 표정과 작은 동작까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점도 소극장 공연만의 매력이다. 창원 가로수길 중심에 자리해 접근성도 좋다. 식당과 카페가 모여 있는 거리 한가운데에서 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가로수극장의 장점이다. 일상의 동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 공연을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창원 공연문화의 또 다른 무대가 되고 있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작은 극장 안에 관객들이 모여들고, 무대와 객석 사이의 거리는 금세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거대한 공연장이 아니어도,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무대는 그 자체로 충분히 특별하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460번길 11 지하층
문의 055-294-9498



대형 공연장이 아니어도
공연은 충분히 가까이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작은 무대에서 배우와 관객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연주자의 음악이 바로 앞에서 울려 퍼지는 경험.
경남 곳곳에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거창한 공연이 아니어도 좋다.
가까운 무대에서 만나는 공연은 때로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거제의 인디 라이브 공연 공간 언드 (und)

거제 옥포동에 위치한 <언드>는 인디 음악 공연과 다양한 라이브 무대가 열리는 공연 공간이다. 2022년 문을 연 이후 지역과 외부의 인디 뮤지션들이 이곳을 찾아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공간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만큼 공연의 거리감은 더욱 가깝다. 연주자의 기타 소리와 보컬의 목소리가 작은 공간 안에서 그대로 전달되고, 관객은 음악과 같은 호흡으로 공연을 즐기게 된다. 공연자와 관객이 같은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기 공연뿐 아니라 기획 공연과 협업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무대가 열린다. 음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이지만, 공간 자체가 하나의 문화 플랫폼처럼 운영되며 지역에서 새로운 공연을 시도하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서울이나 대도시가 아니어도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곳곳에 있다. 거제의 작은 공연장인 언드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연을 만들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소 거제시 거제대로 3734 지하 1층
인스타그램 @und_space

경남교육 ★ 기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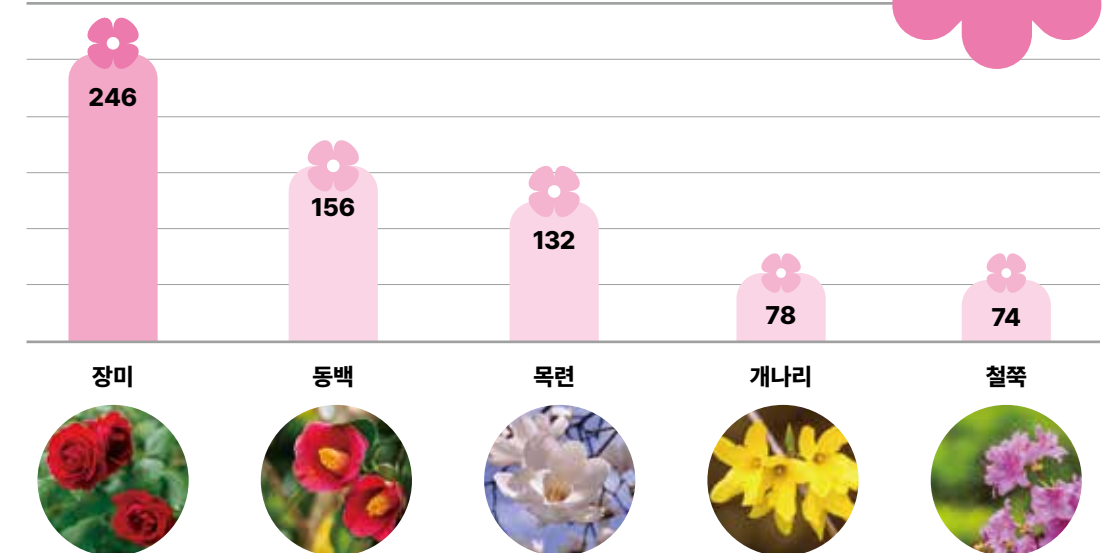
경남 최다 교화 & 교목

계절마다 고운 빛깔과 푸른 숨결로 교정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학교의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교화와 교목입니다. 학교의 정체성과 아이들의 꿈을 담아 고심 끝에 선정된 이 상징들 가운데, 과연 경남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경남의 학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교화와 교목을 ‘경남교육 기네스’에서 살펴봅니다.

경남 학교 최다 교화

경남 학교를 상징하는 최다 교화는 열정과 기쁨,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장미꽃으로 246교(24.8%), 그 다음은 동백꽃 156교(15.7%), 목련 132교(13.3%), 개나리 78교(7.9%), 철쭉 74교(7.5%)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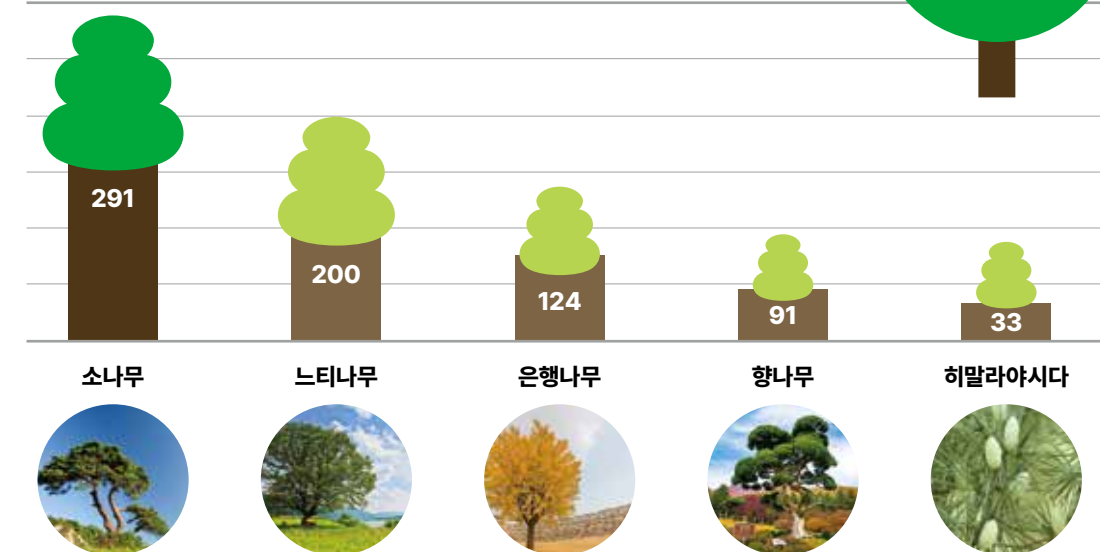
장미(246교)
24.8%



경남 학교 최다 교목

경남 학교를 상징하는 최다 교목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곳곳한 절개와 굳은 의지를 상징하는 소나무로 291교(29.3%), 그 다음은 느티나무 200교(20.1%), 은행나무 124교(12.5%), 향나무 91교(9.2%), 히말라야시다 33교(3.3%) 순이다.

소나무(291교)
29.3%



봄과 함께 펼쳐지는 이야기의 도시

밀양에서 배우는 네 가지 장면

MIRYANG

봄이 오면 도시는 색이 아니라 '이야기'로 먼저 변한다. 겨울 동안 잠잠했던 물이 다시 빛을 받아 반짝이고, 오래된 누각은 시간의 무게를 풀 어내듯 따뜻해진다. 밀양의 봄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기억을 조용히 건넨다. 위양못의 이팝나무에서 시작해, 영남루와 밀양강 수변공원, 밀양 독립기념관, 그리고 밀양아리랑센터까지. 이 길은 자연과 역사, 예술이 서로를 비추며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흰 꽃이 내려앉은 순간

위양못 이팝나무, 자연이 알려주는 시간의 감각

밀양시 부북면에 자리한 위양못은 신라시대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저수지로, 백성을 위한다는 뜻에서 '위양지(位良池)'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연못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단연 봄이다. 4월 말에서 5월 초, 못 가장자리를 따라 심어진 이팝나무가 만개하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하얀 꽃이 물 위에 내려앉은 듯 번지고, 가운데 자리한 정자 '완재정'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완성된다. 이팝꽃은 특별한 꽃이다. 가까이 보면 작고 소박하지만, 멀리서 보면 눈처럼 풍성하다. 아이들은 이곳을 걸으며 자연의 속도를 배운다. 꽃은 서두르지 않고 피고, 물은 조용히 그 시간을 담는다. 그렇게 위양못은 말없이 알려준다. 기다림의 의미와, 계절이 스스로 완성되는 방식에 대해.

강 위에 세워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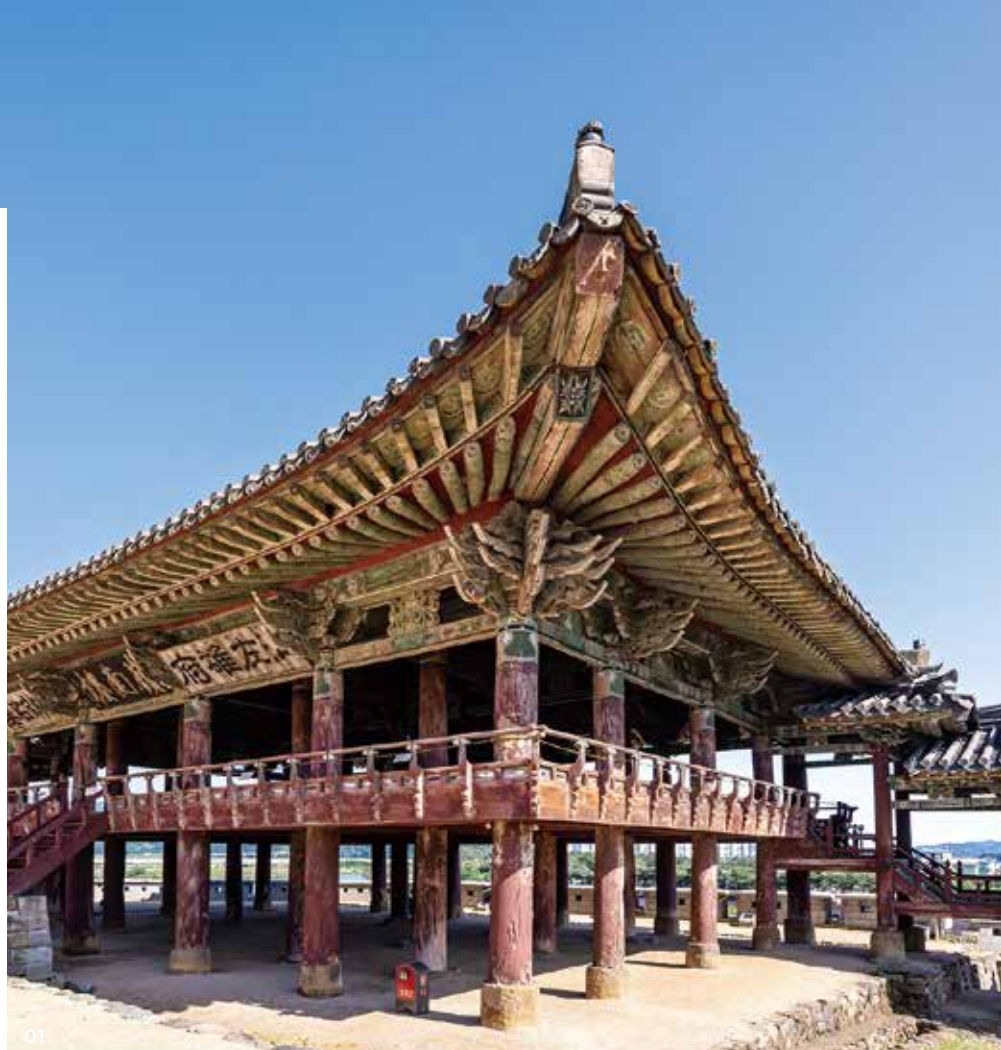
영남루와 밀양강 수변공원, 도시의 기억을 걷다

밀양강을 따라 걷다 보면, 강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모습을 드러낸다. 영남루다. 조선시대 객사의 부속 누각으로 사용된 이 건물은 진주 축석루, 평양 부벽루와 함께 한국 3대 누각으로 꼽히며, 2023년 국보로 재지정됐다. 영남루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시대를 건넌 공간이다. 고려시대 창건 이후 여러 차례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며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 누각 아래로 흐르는 밀양강과 수변공원은 오늘의 밀양을 보여준다. 강을 따라 조성된 산책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이곳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존재한다. 아이들에게 영남루는 역사책 속의 건물이 아니라, 직접 걸어보고 바라볼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가 된다.

기억을 잇는 공간

밀양 독립기념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밀양아리랑대공원 안에는 밀양 독립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공원에는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충혼탑과 아리랑센터 등 다양한 역사·문화 시설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화려하지 않다. 대신 조용하다. 전시된 기록과 사진들은 특별한 영웅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름 없이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오늘의 시간을 생각하게 한다. 아이들에게 역사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01



02

소리로 이어지는 도시

밀양아리랑센터, 전통이 오늘을 만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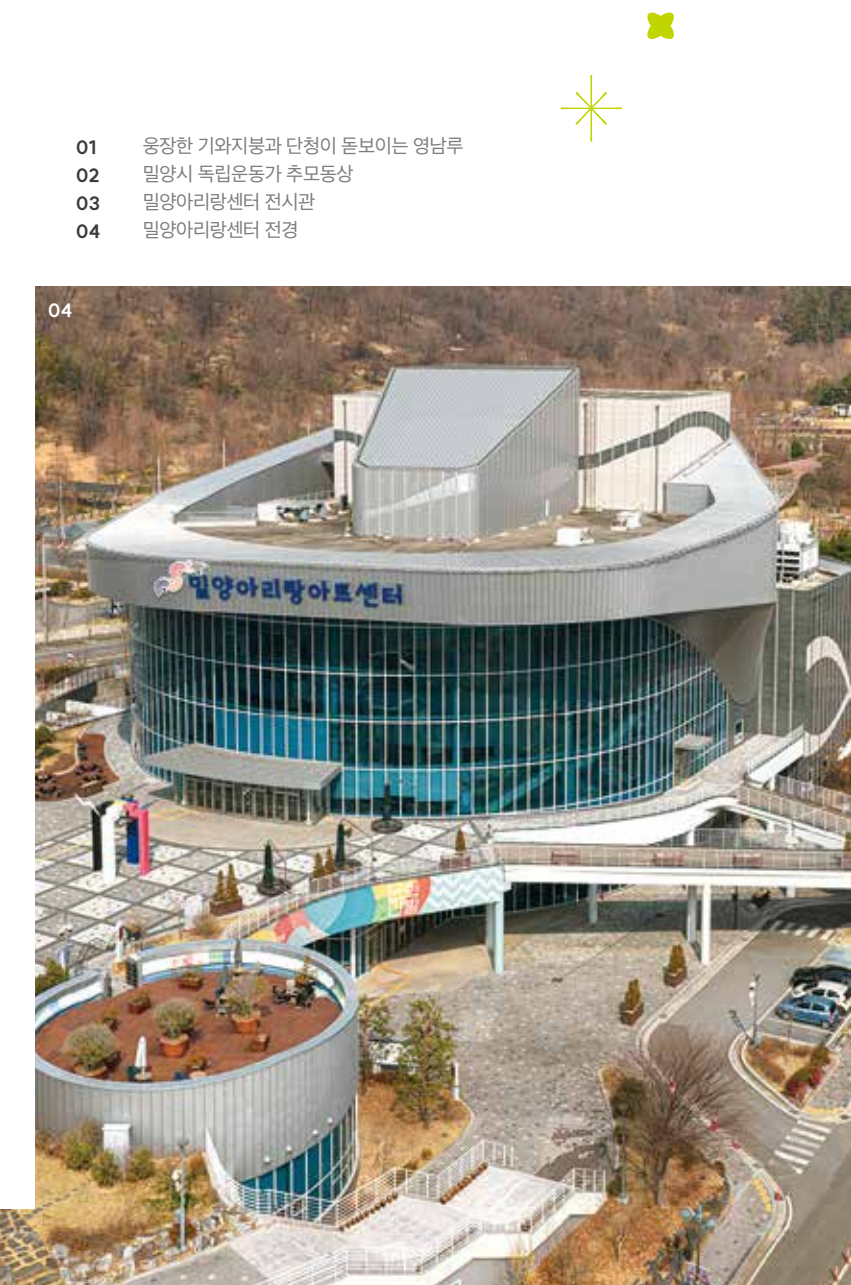
밀양아리랑센터는 공연장과 전시관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밀양아리랑의 전통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화로 이어진다. 공연이 열리는 날이면 무대 위의 소리와 객석의 숨결이 하나로 이어진다.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지역이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지켜왔는지에 대한 감각이다. 전통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깨닫게 된다.

밀양에서 배우는 것

밀양의 봄은 화려하지 않다. 대신 깊다. 위양못에서는 자연의 시간을 배우고, 영남루에서는 역사의 깊이를 느끼고, 독립기념관에서는 기억의 의미를 생각하고, 아리랑센터에서는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순간을 만난다. 이 도시는 말없이 묻는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밀양을 걷는다는 것은, 그 질문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길 위에서, 교과서 밖의 배움을 만난다.



03



04

- 01 웅장한 기와지붕과 단청이 돋보이는 영남루
- 02 밀양시 독립운동가 추모동상
- 03 밀양아리랑센터 전시관
- 04 밀양아리랑센터 전경

'두 쫌 쿠'를 아시나요?

줄임말 속 숨은 마음 읽기



2월의 교무실, 새 학기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 선생님들 사이에서 생소한 단어 하나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선생님, 요즘 애들이 ‘두쫌쿠’ 먹으러 간다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동료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혹시 ‘두근두근 쫌둑한 쿠키’ 아닌가요? 새 학기를 앞둔 설레는 마음을 담은 간식 같은데요.”

“하하, 국어 선생님다운 낭만적인 해석이시네요! 그런데 찾아보니 ‘두바이 쫌둑 쿠키’의 줄임말이래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넣어 만든 요즘 줄 서서 먹는 간식이라나 봐요.”

저의 엉뚱한 추측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국어 교사인 저조차 요즘 세대의 언어 세계 앞에서는 가끔 길을 잃곤 합니다. ‘두바이 쫌둑 쿠키’를 ‘두쫌쿠’로 줄여 부르는 화법은 무척이나 경제적이고 빠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세 글자 안에는 단순히 말을 줄였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행하는 문화를 빠르게 공유하고,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하며 유대감을 느끼고자 하는 세대의 ‘맥락’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문해력이란 단순히 표준어를 많이 알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태어난 말들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도를 읽어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어 교사로서 무분별한 줄임말이 소통의 장벽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줄임말을 무조건 밀어내기보다 그 말이 생겨난 배경을 먼저 들여다보려 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문화를 먼저 이해할 때, 비로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바른 문장들도 그들의 마음에 온전히 닿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애들아, 선생님도 이제 ‘두쫌쿠’가 뭔지 알았어. 이번 새 학기에는 너희들의 생생한 언어와 선생님의 바른 문장들이 서로의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비워진 게시판을 보며 올해의 첫 수업을 준비합니다.

다정한 문해력 수업, 말·글 좋아 ♥

안녕하세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읽고 쓰며 즐겁게 수업하고 있는 국어 교사 홍수진입니다.

이번 달부터 ‘아이좋아’ 소식지를 통해 경남 교육 가족 여러분과 문해력에 관한 다정한 고민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실 현장에서 걸어 올린 말과 글의 조각들을 이곳에 차곡차곡 담아보려 합니다.

우리말 돋보기

줄임말의 세계

1. 줄임말은 왜 생길까?

우리말에는 긴 단어나 구절을 줄여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효율적인 소통을 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 ‘두쫌쿠’의 형성 원리

‘두쫌쿠’는 ‘두바이 쫌둑 쿠키’라는 긴 명사구에서 각 단어의 첫 음절만 따와 만든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SNS 등에서 빠른 소통과 유행 공유를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 우리가 몰랐던 일상 속 줄임말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해서 원래 단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줄임말인 표준어들이 많습니다.

- 총선(總選) ‘총선거(總選舉)’의 줄임말. 여기서 ‘총(總)’은 ‘거느리다, 모두’라는 뜻으로,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뽑는 선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입시(入試) ‘입학시험’의 줄임말. 현재는 입학 전형 전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 내신(內申) ‘내부적으로(內) 보고함(申)’이라는 뜻으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 내부에서 학생의 성적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일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2. 맥락을 읽는 힘, ‘소통의 문해력’

문해력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문해력은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읽힐지, 또 이 상황에 적절한지를 살피는 ‘소통의 감각’까지 포함합니다. 줄임말이나 신조어는 우리끼리의 친밀감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소통을 차단하는 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다정한 언어적 배려 일상 속 줄임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적 태도를 갖추어야 할까요?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단어의 무게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공적인 상황 보고서나 공식적인 안내장 등 정보 전달이 명확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줄임말보다 정갈한 본래의 명칭을 사용하여 신뢰를 전합니다.
- 세대의 장벽 ‘신조어가 낯선 세대와 대화할 때는 상대의 눈높이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여 마음이 오가는 길을 먼저 살핍니다.



줄임말을 쓰기 전, 내 말이 상대방에게 오해 없이 가닿을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하는 마음. 그 다정한 배려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마음상담소 4월 상담기록지

초등 입학 후 또래 관계, 보호자의 역할은?

이달의
상담 주제

낯가림이 많은 아이다 보니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또래 관계에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어떤 태도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지 고민입니다.

학령기 이전과 이후의 아이 발달 변화 이해하기

먼저 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의 시선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낯가림은 아이 자신의 안정 정서를 높이고, 불안 요인을 선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서 발달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전의 유치원과 확연히 다른 변화의 시작점으로, 아이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과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의 정서적·인지적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지만 동시에 불안이나 스트레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즉 새로운 교실과 친구, 선생님이라는 낯선 요소에 적응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아이의 지금 상황적 특성을 이해하고, 아이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서적 반응에 ‘공감’과 ‘지지’의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성 발달과 보호자의 역할

아이가 평생에 걸쳐 자신의 자산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사회성’의 발달은 일반적으로 유치원 중위 연령에서 시작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 형성되는 시기적 특성을 보입니다. 이때 낯선 사람이나 환경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아이에게 보호자의 지지는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 아이의 사회적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호자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힘들었지? 엄마는 우리 00의 마음을 이해해.”, “엄마도 처음에는 00처럼 친구들에게 먼저 말 못 했었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 해봤어?”와 같이 아이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공감과 이해의 말을 건네면, 아이는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나눌 수 있고 동시에 변함없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존재에 대한 심리적 안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스스로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면서도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아이에게 질서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 교문 앞의 안전지킴이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아이 친구의 보호자에게 먼저 말을 건네며, 등굣길에 위험한 행동에 대해 알려주는 등의 사회적 행동을 보호자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은 아이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초등학교는 단순히 학습 능력만 향상시키는 공간은 아닙니다. 아이가 평생에 걸쳐 인생의 태도로 완성해 가는 ‘사회성’을 연습하는 중요한 경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키 크는 속도, 친구를 사귀는 속도,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는 속도 등 모든 영역에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을 때,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을 때 불안감이 올라오면 아이는 가장 먼저 자신이 적극적으로 지지받았던 기억과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집’과 ‘엄마’, ‘아빠’ 등 보호자입니다. 이런 심리적 안전장치가 없다면 아이는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불안해할 때마다 보호자는 지지와 안정을 주셔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아이에게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보호자에게도 앞으로 아이를 대하는 방식을 연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이의 성장을 이해하고 기다리며 충분히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는 바르고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글. 안창근

경상남도가족센터 부모코칭전문가



4

2026 이달의 경남교육 행사를 소개합니다

-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김해도서관
-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마산도서관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창원도서관

일	월	화	수
			1 ● (~31일 까지) 9:00~18:00 / 경상남도 교육청 스마트도서관 / 책드림과 우리 사이 ● (~30일 까지 월~금) 10:00~15:00 / 김해체험분원 /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 생태체험 ● (~30일 까지 월~금) 10:00~15:00 /진주체험분원 / 즐겁고 신나는 과학체험
5 ● (4월 매주 일 운영) 10:00~11:00 / 정글북 책오름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6 ● (~15일 까지) 6일 10:00~15일 10:00 /진주체험분원 / 4월 생각쑥쑥 토요과학체험 사전 신청 기간	7	8 ● 16:00 / 1층 나눔방 / 사서쌤과 함께 그림책 탐구생활
12 	13 	14	15
19	20 ● (~22일 까지) 9:30 / 김해체험분원 / 행복한 동행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사전신청기간 ● (~22일 까지) 20일 10:00~22일 17:00 / 진주체험분원 / 재미팡팡 신나는 과학축제 사전 신청 기간	21	22
26 	27	28 	29 ● 11:00 / 2층 지혜마루 / 수요일음악회 <춘(春)가락 콘서트> ● 15:00 / 책담 1층 해오름 / 영화 상영 <미녀와 야수>

목	금	토
2	3	4 ● 16:00~17:00 / 정글북 별당 / 김순영 작가가 들려주는 그림책 <압> ● 14:00 / 해담 1층 해2 / 체험 <토요책동산> ● (4월 매주 토 운영) 11:00 / 책담 1층 다운누리(해오름 옆) / 체험 <AR 모래놀이> ● (4월 매주 토 운영) 14:00 / 책담 2층 책고리 / 체험 <VR 자연 힐링 체험, VR 스포츠 체험> ● (4월 매주 토 운영) 15:00 / 책담 1층 누리를 / 공연 <댄싱 로봇 공연>
9 	10	11 ● 16:00~17:00 / 정글북 별당 / 샌드아트 <너는 어떤 씨앗이니> ● 14:00 / 2층 지혜마루 / 토토로 어서옵SHOW <최은아 재즈 코라트> ● 15:00 / 1층 세상올봄 / 성악팀 벨그란디스 콘서트 ● 9:30~16:30 / 김해체험분원 / 4월 가족나들이 토요 생태체험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SHOW지혜중심 <봄이 오는 소리>
16 	17	18 ● 16:00~17:00 / 정글북 별당 / 인형극 <파이도독을 찾아라> ● 11:00 / 1층 별빛마루 / 별빛인형극 <책과 공나무>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SHOW 지혜중심 <관악으로 떠나는 3색(色) 음악 여행> ● 15:00 / 책담 야외 / 책담 힐링 공연 - 옐로온 밴드 공연 <책 사이로 흐르는 노래, 우리 가족의플레이리스트> ● 10:00~12:00(오전), 14:00~16:00(오후) / 진주체험분원 / 4월 생각쑥쑥 토요과학체험
23	24	25 ● 14:00 / 2층 지혜마루 / 인문학 강연 <행복의 매커니즘: 나의 행복은 타인과 연결된다> ● 14:00 / 3층 무학전당 / 토요일문특강 <음식과 약이 말하는 우리의 봄 '정재훈'>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SHOW 지혜중심 <어린이왕자> ● 10:0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VR 포럼> ● 15:00 / 책담 1층 꿈뜨락 / 재능기부 힐링 공연 - Spring chamber music <클래식 실내악 공연>
30	프로그램 안내사항 안내 사항 -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면의 한계로 일부 행사만 소개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각 기관의 누리집이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경남특수교육이 함께합니다.

모든 아이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경남특수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 갑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이

서로를 '존중'하는 시작입니다.



2026

2026년 달라지는 경남특수교육

- 통합유치원 시범 운영 및 통합교육 모델학교 운영
- 개별화교육계획 및 진로학업설계 지원 강화
-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개소 예정
- 특수교육대상유아 이음교육 시범 운영

경남 특수교육 지원체계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치료지원, 순회교육, 학부모 상담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연수 및 교육 지원을 통한 경남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거점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전환교육·시청각장애 등 특성별
거점센터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